

주택·건축·건설 최신 트렌드 한곳에

강원에코홈페어 주택건설건축박람회 2017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도와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후원하는 '강원에코홈페어 주택건설건축박람회 2017'이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강원에코홈페어 주택건설건축박람회는 2010년 첫 개최 이후 7년간 매년 관객객 1만명 이상이 행사장을 찾으면서 지역 건설 및 중소기업계의 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주택·건설·건축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지역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람회를 통해 전시되는 기업들의 제품은 다양하다.

대상 분야는 △가구 및 인테리어 △전원주택 및 정보 △건축자재 △조경·공공시설 △욕실·주방 △냉난방 기기 △창호재 △조명·전기시설 △건설 장비 및 건설안전 보호구 △건설신기술 등이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2018평창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한 전진대회, 수호랑 반다비와 함께하는 포토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또 참여업체와의 소통을 위한 비즈니스관, 공공분야관, 일상생활관, 산학협력공동관, 일대일 상담관 등 다양한 구성관이 운영된다. 또 방문객들은 국악, 마술

건설단체聯·강원일보사 주최
10월18~20일 춘천 봄내체육관

건설·中企 홍보의 장 자리매김
업체·지자체와 소통 상생 발전
올림픽 캠페인 등 행사도 다채

등 문화예술 공연과 스탬프챌리를 통해 캐리커처, 발마사지 서비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받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택·건설·건축 및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

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를 비롯해 18개 시·군의 주택·건설·건축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행사 기간 박람회장을 찾아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신공법·신기술 등 설치된 부스들을 둘러보고 자치단체에 적용할 대상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여 참가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와 거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한편 강원에코홈페어 주택건설건축박람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강원 ECO홈페어2017 사무국 전화(070-5056-3692) 또는 홈페이지(www.gwecohomefair.co.kr)로 하면 된다. 유재규기자 koo@kwnews.co.kr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왼쪽 사진)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설경기 동향과 대응방안, 건설·주택 분야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안윤수기자 ays77@

김현미 장관 “SOC 감축, 건설투자 패러다임의 변곡점”

건설업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 “건설, 낡은 이미지 벗고 신성장산업으로 거듭나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내년도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축과 관련, “건설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곡점 위에서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주택업계 대표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건설산업의 ‘변화’를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김 장관은, 우선 건설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인프라 신규투자는 줄지만 노후 시설물 성능개선이나 도시재생과 같이 국민 안전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사업 소요는 계

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건설산업이 외형 위주의 ‘낡은 전통산업’의 이미지를 벗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질적 성장의 ‘신성장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도로처럼 정보통신(IT)과 소프트웨어 산업 간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와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변화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설계·엔

지니어링 역량을 높여 단순 도급 시공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외건설 수주를 위해선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생산과정 전반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발주자에서부터 건설근로자에 이르는 생산과정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원·하도급업체 모두 제값을 받고 공사하고, 건설근로자는 생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뿌리가 튼튼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평택 국제대교 사고 등 잇단 건설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의 작은 부주의도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정부와 업계 모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5개 협회 대표와 건설분야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태형기자 kth@

“제값 받는 시공환경 조성... 건설 재도약 民·官 힘 합쳐야”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주택업계 간담회는 업계 대표들이 애로사항을 건넨 반면 장관이 이에 답하고, 향후 건설산업의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우리는 공공 주도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과 민간의 창의적 벤처창업 등을 통해 IT산업 강국으로 도약한 성공의 경험이 있다”며 “건설산업도 정부와 업계가 한마음을 모아 체계를 선도하는 성장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산업은 물량 부족과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청년들도 오고 싶어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설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과 함께 법정부 차원의 해외 건설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발주기관들이 시공사 책임이 아닌 공기연장 추가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면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며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적정한 추가비용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계속공사의 발주 비중을 늘려 공기연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자본금을 늘리고 ODA(공적개발원조)의 건설 지원한도를 최소 2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건설금융 지원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조기행 SK건설 대표는 역대 최대 폭으

발주처, 시공사 책임 아닌
工期연장 추가비용 떠넘겨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韓 인프라 여전히 열악해
SOC 예산 투자 지속돼야

중소건설사 성장기반 확보
적정공사비 지급 가장 시급
불공정 계약관행도 근절을

로 삭감된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문제를 짚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통근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평균인 28분보다 2배나 많은 62분이고, 국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8.6㎡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과 국민 복지·안전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손성연 씨엔씨종합건설 대표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지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저가낙찰을 부추기는 입찰제도 탓에 건설산업의 기반이 파헤쳐지고 있다”며 “산업 생태계가 정상 작동되도록 100억~300억원대 중소기업에서 표준시장 단가를 배제하고 중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맨 앞)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심사낙찰제의 인위적 저가 유도장치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은 8·2 부동산대책 일부 완화와 함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택지공급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서민·실수요자의 조정 대상 지역 소득기준이 투기과열지구보다 낮아 대출 심환능력이 좋은 맞벌이가구도 대출 한도 축소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현실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또 “주택의 건축자재·부재의 원산지 정보제공 의무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선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건의했다.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하도급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입찰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해외건설 금융지원 확대와 전담기구 설립 지원(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인대주택용 공공택지 개발 및 민간업체에 대한 공급 재개(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시장 규제일변도 정책 지양(정원주 세종충흥건설 대표) △적정 예산 책정 및 낙찰률 상향조정(신희정 동명기술공단 대표) 등의 건의가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형기자 kth@

제2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명단

직종	순위	성명	소속회사
거푸집	1	정대성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2	전희선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3	양동주	광주전남건설기능학교
건축목공	3	장재우	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1	윤을준	(주)삼양건설
	2	김시찬	청남직업전문학교
미장	3	백운식	(주)삼양건설
	3	정민상	아낌없이주는나무
	1	명노수	대륙종합건설(주)
조적	2	윤민영	라온건설(주)
	3	석종성	(주)한빛기업
	3	강명호	남강건설산업(주)
철근	1	정대중	남강건설산업(주)
	2	남현구	(주)세진
	3	장덕부	명진코퍼레이션
	1	임채호	광주전남건설기능학교
	2	임병권	(주)삼양건설
	3	김성목	광주전남건설기능학교

직종	순위	성명	소속회사
타일	1	한원용	(주)동림에이스
	2	박병식	정안건설(주)
	3	하계수	(주)민지건설
배관	3	강갑수	(주)세후타일건설
	1	이상인	(주)미래세움종합건설
	2	김영찬	(주)대건
전기용접	3	이수군	(재)건설기술교육원
	3	안상현	성마기업(주)
	3	이강근	준제이엔씨(주)
	1	성광현	(주)대성이엔지
	2	김학순	대산이엔씨(주)
	2	손창섭	(주)미래세움종합건설
도장	3	김민규	태정테크
	3	오병찬	(주)동원파츠
	3	최용태	한진KPS(주)
	1	박상진	(주)우신에이스
	2	박정미	(재)건설기술교육원
	2	손지홍	태완개발(주)
	3	김형목	(주)미성건축디자인
	3	지승철	(재)건설기술교육원
	3	윤정자	태완개발(주)

직종	순위	성명	소속회사
측량	1	조형식	한국산업단지공단
	2	주인구	(주)제이에스이엔지
	3	임용선	-
조경	3	오인택	공간정보산업협회
	3	엄수현	공간정보산업협회
	1	김한수	남우산업개발(주)
전산응용목제도	2	김유나	푸른마을사람들
	3	우영남	산정원
	1	권병수	(주)드림이엔지
실내건축제도	2	유수원	(주)제일공사
	3	유정곤	(주)한국종합기술
	3	민한규	(주)미래기술단
방수	1	이상희	(주)에맥
	2	이상무	(주)나노
	3	김민휘	(주)에맥
	1	장명섭	(재)건설기술교육원
	2	김윤식	(주)해천건설
	3	하종란	(주)해천건설
3	김해숙	티.지조경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